



전주대 이상균 교수, 정년 퇴임 앞두고 고별 강연

전주대학교 이상균 교수(역사콘텐츠학과)가 지난 28일 성연홀에서 8월 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신석기 시대 한일간의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고별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이 교수가 30여 년간 축적한 학문적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29일 전주대에 따르면 강연 전, 인문콘텐츠대학 김건우 학장을 비롯한 동료 교수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고, 학부생·대학원생·졸업생이 전하는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라는 영상 편지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어진 이상균 교수의 강연에서는 호남 지역 신석기문화의 특징과 그에 따른 대외 교류의 양상을 중심으로, 남해안과 일본 사복구주지방 간의 비교 연구를 공유했다. 특히,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기 문화의 유사성에 주목해 활발한 교류와 기술 전파가 됐음을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교수 대표와 학생 대표가 감사의 꽃다발을 전하는 '화한 꽃을 가슴에 순서가 이어졌고,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과 업적에 경의를 표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지구를 지키는 지평선'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29일, 요촌동 일대(구산사거리~지평선문화축제발진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CG(지구를 지키는 지평선) 캠페인 1화차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2025 김제자원봉사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자봉회 3기'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심 속 방치된 화단에 꽃과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봉사자들은 시 도시과와 협의해 선정된 요촌동 일대 화단 13개에 상록수 및 초화류 등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방치된 도시 공간을 탄소흡수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흥덕농협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종)은 29일 성내면 돌봄 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NH농협 고창군지부와 흥덕농협의 공동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돌봄 대상 농가를 찾아 도배·장판 교체 등 지원하였으며, 농업인행복콜센터의 상담과 NH농촌현장봉사단의 현장확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백영종 조합장은 "고령 조합원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소재 축협·전북농협 등, 고향사랑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소재 축협, 전북농협 축산경제 계열사 등 4개 기관이 고향사랑기부금 1,532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전주감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 전북농협 축산경제 계열사인 농협목우촌 김제 육가공 공장 나흥준 공장장, 농협시료 전북지사 박진만 지사장, 도드람 김제 IMC 양돈농협 이재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김제 소재 축산 관련 기관 임직원 154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532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김제시에 전달한 것으로 이웃사랑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여한 김창수 전주감제완주축협 조합장은 "김제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뜻을 모아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아동복지시설 후원금 4억원 전달식

JB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 전북자치도 등 협력 지역아동센터 등 40여 곳 발굴해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후원금 4억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은행으로서 ESG경영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아동센터 등 40여 곳을 발굴해 책상, 의자, 책장,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며 사회공헌 전달부서에서 직접 시설방문 및 의견청취, 고충해결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으로써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황철호 복지여정보건국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영규 회장, 이삼 한영규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전북의 미래를 밝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전북은행은 13년 동안 지속해온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건축사협회, 전북 산불 이재민에 성금 1000만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재복)가 전북자치도 산불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상열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 이태원·박광성 부회장, 장영기 총무이사, 한영규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정읍, 무주, 순창 고창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에 400만원 △무주군·순창군·고창군에는 각 200만원씩 지역별로 지정 기탁됐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돼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금을 전달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전국 1만7,000여명의 건축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건축사 단체로, 건축문화 진흥과 공공 안전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재난을 극복하겠다는 건축사들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장애인복지관·법무부, 장애청소년 법의식 향상 맞손

장애청소년들이 법을 두려운 존재가 아닌,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읍시가 법무부와 손을 잡았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정읍지회협의회(회장 황병형)는 지난 28일, 지역 내 장애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법교육과 인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감윤정 지청장이 참석해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이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예방 체감교육 △법과 함께하는 권리여행 △장애청소년 공감 법콘서트(공연형·강의형)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 무풍면 지사협, 돌봄 가족에 물품 전달

무주군 무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서종열, 민간위원장 김준희)가 가족 돌봄으로 지친 돌봄 가족 20가구에 2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아름 세트)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이나 치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겪고 있는 돌봄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준희 민간위원장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지친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투자유치과, 용지면서 농촌일손돕기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29일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용지면서 봉의라에 있는 포도 농가를 찾아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 중 하나인 순지기 및 결순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 작업은 포도의 통풍을 좋게 하고 영양분 분산을 줄여 당도 높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정성을 다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참여한 직원들은 정성껏 작업에 임해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농촌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성수 농협 장수군 지부장,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 김성수 지부장은 지난 28일,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익수 장수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이승연 장수군 학부모협의회 회장의 지목에 따라 참여하게 되었으며, 김 지부장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수 지부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단지 숫자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와 교육,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농협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급격한 출생률 저하,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 릴레이 캠페인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 차원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전 군산지사, 도서지역 전력 인프라 개선사업 시행

한국전력 군산지사는 지난 27일 전력서비스가 열악한 개야도 및 비안도 등 도서지역을 방문하여 노후된 전력설비를 교체 및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정비 사업은 하계 부하대비 도서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써 도서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도서지역 현장에서는 노후 전력설비 교체와 더불어 선로 점검 및 보강, 배전선로 순시 등이 이루어졌다.

한전 군산지사장은 "관내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력설비 유지관리를 일반인 중대사민재해를 예방하고, 본사 및 본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국민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민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남원시는 29일,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남원시 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전담전문가, 시 여성가족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YWCA 통합상담소 등 여성·아동 안전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안전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부서별 연계방안과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 안전사업 발굴을 위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동동동, 취약계층 밀반찬 지원

남원시 동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가 29일 17가구 소독행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밀반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두 차례 식사 준비가 어려운 17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반찬을 제공하며, 5월에는 배추김치, 장조림, 잔말치 등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반찬을 전달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따뜻한 나눔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